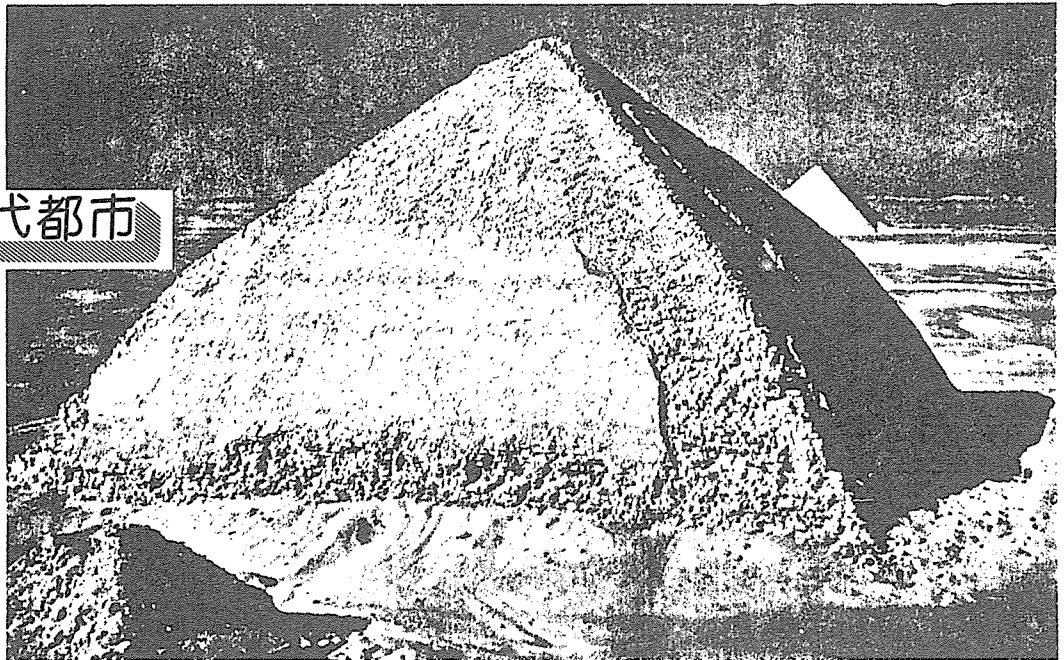


## 잃어버린 古代都市



이집트의 發見은, 世界的인 意味의 發見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古代라고 하면 素朴, 單純하고 유유하다는 등의 이미지를 聯想하게 되는데, 왜냐 하면 그것은 우리들의 文明은 대단히 高度, 복잡하고 치밀하다는 잘못된 신뢰감의 탓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들의 習慣으로는 現代의 反對側으로 古代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根本에 있는 것은 역시 進歩思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進歩思想이란 것도 19세기에 다윈의 進化論이나 헤겔의 歷史觀에 의해 생긴 것으로 하나의 특수한 立場에 불과한 것이다.

사실 이집트에 가보면 피라밋은 단조로운 形이긴 하지만 그 細密한 여러가지 꾸밈새나 神殿 등의 디테일의, 例컨대 조각이나 建物の 부분적인 것의 엄밀성 自体는 대단히 조직화된 치밀성을 갖고 있으며, 古代 이집트인이 어떤 類의 이미지로 世界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痛感하게 한다. 그것은 조직화되고 복잡하고 치밀하다는 것이며, 어느 意味로는 우리들이 大量生産 하는 時代에 만든 텔레비전이나 자동차보다도 더 치밀한 그 무엇이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피라밋이 갖고 있는 巨大성과 工芸品이 가지는 極微한 世界, 이 雙方을 모두 카버할 수 있을만한 文化-文

化라는 것을 어떤 種類의 오가닉한 조직이라고 한다면 그만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경이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文化 나뭇의 共同體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네이션이란 것도 상당히 정비된, 壯麗한 밸런스 잡힌 世界觀으로 뒷받침되고 있었던 것 같다.

古代에 대해서 우리들의 現時代가 誇示할만한 것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그것은 生産力과 에너지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만 한정돼버릴 듯하다. 그런데 에너지와 生産性이란 것은 時間의 関數이며 얼마나 되는 時間에 얼마만큼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다. 現代는 확실히 능률이 좋아서 短期間에 많은 製品을 만들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고작 百年이나 數百年의 소행에 不過하다.

그런데 이집트의, 極端的으로 말해서 3千年, 5千年 동안에 生産된 것의 總量을 現代와 비교하면 어느 편이 하나의 文化로서 많은 知的, 物的인 에너지를 소비했느냐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

말하자면 우리들의 進歩思想, 進歩主義라는 思考는 根底로부터 相對主義에 빠져버리고 만다. 古代 이집트의 體驗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반드시 文明國이라고만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한번 품어 볼만하다.

미이라의 埋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피라밋을 남겨진 古代 이집트인의 想像力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아무리 해도 그들의 生死觀에 대해서 言及하지 않을 수 없다. 확실히 그들은 영혼의 불멸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死後에도 生前 모양의 생활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死者를 미이라로 만들어 엄청나게 많은 豪華스런 매장품과 함께 저세상의 여행길에 오르게 하였을 것이다.

매장품에는 食料品은 물론, 王의 生前의 日用品이나 戰利品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死者로 하여금 不自由함이 없게 할 배려였던 것이 틀림없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共同體는 死者와 더불어 하나의 共通世界의 이미지 속에 생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부장품 자체는 生の 現實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죽음 속의 「生の 現實」의 表徵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實體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피라밋은 巨大한 王의 權力과 富와 勞動力의 증거라고 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왜 死後世界보다도 전쟁이나 정복, 혹은 宮殿과 같은 보다 現實的인 가치에 에너지를 쏟지 않았단 말인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消滅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았던 古代 이집트인이 共同體를 통해서 全力을 다해 쌓아 올린 죽음의 裝置가 피라밋이었던 것이다. <心象>